

주생활 공동체 의식에 따른 코하우징 선호도

Preference of Cohousing according to Sense of Community in Housing Life

곽유미*
Kwak, Yu-Mi

최정신**
Choi, Jung Sin

곽인숙***
Kwak, In-Sook

Abstrac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nfluence on preference of cohousing (eg. intention to spread and intention to move in cohousing) according to sense of community, especially in housing life by married people residing in Seoul and its outskirts. Research method used for this study was a social survey. Respondents were 214 people by accidental sampling.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12.0 program using frequency, mean, average, T-test, one-way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nd Chi-square test.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Most respondents took part in interactive activities with colleagues from the same occupation. They Focused on the issues about health, leisure and hobby. The respondents mainly wanted to have interaction for changing recycling materials and education programs for children and juveniles. Degree of ideal relationships with neighbors, they think, were greeting and chatting as well as communication about issues on child-care, education for children, offense-prevention and safety. Although respondents were interested in community life and in interaction with their neighbors, they did not build up communal society due to lack of a sense of belonging in their living areas. While respondents showed positive response about preference of cohousing, there were difference between intention to spread of cohousing and intention to move in cohousing.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stronger sense of community in housing life meant the more interests in thoughts to spread and to move in cohousing.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sense of community in cohousing, the plan of various communication programs that enables frequent interaction among neighbors is needed. Also, in order to spread cohousing in Korea, promotion of cohousing community and cognitions about it are the most needed.

Keywords : Sense of community in housing life, Intention to spread cohousing, Intention to move in cohousing, Preference

주요어 : 주생활 공동체 의식, 코하우징 보급의사, 코하우징 입주 의사, 선호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사람들의 주거에 대한 인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며, 그에 따른 주거의 선택 및 선호도 또한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단독주택을 이상적인 주거형태라고 말하지만, 실제 주거선택에 있어서는 생활의 편리성, 경제성, 독립성 등을 이유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아파트 생활은 사생활 보호, 익명성을 강조한 나머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삶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보다 '나'를 먼저 고려하는 사고방식과 생활여건에 따른 잦은 주거이동으로 우리 동네, 우리 지역사회라는 공동체 의식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도시의 복잡함과 공동주택의 익명성에서 벗어나 이웃과 도움을 주고받고

생활의 지혜를 나누며 살고 싶어 한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 공동체 의식의 형성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주거 형태인 코하우징(Cohousing)이 주목받고 있다. 이 코하우징은 개인이 소유하는 단위주택과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생활시설이 함께 계획된 주거로서, 공동생활 시설은 주민의 가사노동과 육아의 부담을 줄여주고 여가 생활을 도우며 이웃간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코하우징은 개발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참여와 이를 통한 공동체 의식을 촉진시키는 물리적 공간, 개별주택을 보완하는 공동생활시설의 확대, 그리고 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함께 관리하고 공동체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주거생활양식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점과 정부 당국, 건축가 등 전문가들의 실천에 의해 적극적으로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여 실현했다는 점에서 코하우징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의도적으로 일정한 지역적 공간테두리 속에서 구성원들끼리 상호접촉하면서 정서적으로 밀접하게 생활하는 공동체 마을이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입시교육제도 반대라는 동일한 목적을

*정회원(주저자), 가톨릭대학교 생활문화학과 주거학전공 박사과정
**정회원(교신저자),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주거학전공 교수
***정회원, 우석대학교 실버복지학과 노인주택전공 교수

이 논문은 2006년 추계학술발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가진 부모들이 모여 대안학교를 만들고 그 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안술기 마을, 귀농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진도리 마을, 환경농업을 마을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문당리 마을, 개발로부터 마을 공동체를 지켜나가려는 물만골 공동체 등이 다양한 과제를 가지고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정주형태를 띤 공동체 마을은 자연발생적이기보다는 의도적으로 형성된 공동체로, 공간적 근접성으로 인해 상호접촉의 기회가 높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통해 공동체 삶을 넓혀가고 있다.

오늘날 변화되는 주거환경 속에서 전통적 의미의 자연스러운 공동생활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즉, 도시인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동 목적을 중심으로 일정한 물리적 공간 속에서 '의도화된' 공동체를 형성하여 공동의 결속감을 활성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및 수도권 지역에 사는 기혼 남녀들이 어떠한 주생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주생활 공동체 의식이 촌락공동체의 성격을 띤 코하우징의 선호도(도입 및 입주의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데 있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에 코하우징이 도입될 때 유용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용어정의

(1) 주생활 공동체 의식

공동체란 어떤 장소나 지역을 공유하거나 또는 심리적인 친밀감이나 동질감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다.¹⁾ 보가타는 사회학적인 연구에서 제시한 94개의 공동체에 관한 정의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사회적인 사회 작용, 공유된 연계성, 함께 공유하는 지리적인 공간이라는 공통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²⁾ 松 寿 康(1990)은 공동체의 범위를 광의·협의·최협의로 분류하였다. 광의의 공동체는 특정한 의미를 갖고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집합으로서 친족 공동체 또는 부족 공동체를 말하며, 협의로는 지리적인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가장 좁은 의미로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일상적인 접촉의 범위에서 특정한 의미의 갖고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집합을 의미한다.³⁾ 홍형욱·채혜원(2002)은 공동체는 물리적으로 인접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공통된 사회구조와 유사한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공동체라고 생각한 그 지역과 관련된 정체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개인과 가족의 일상생활의 중심지가 되는 주거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을 공동체로 인식하는 경우 거

주자는 지역적 공간성을 중심으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문화적·심리적 유대감 등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공동체 의식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회적 결속과 관련된 집합의식 또는 집단 전체의 공통된 의식을 말한다. 즉, 이웃이나 도시와 같은 장소에 관계되는 공동체에 대한 지역(territorial) 또는 지리적(geographic)개념이고 인간관계의 특성에 관계되는 관계적인(relational)생각이다(McMillan and Chavis, 1986: 9).

Nisbet(1962)은 공동체 의식을 '함께 살고 함께 일하고, 함께 겪는 그리고 함께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작은 규모와 안정된 구조의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 집단의식'이라고 규정하였고, Popplin(1979)은 '타인과 함께 공유하면서 획득하는 문화적인 정체성과 심리적인 안정감'이라고 하였다. Davison와 Cotter(1991)은 '사람들과 그들이 지역사회 간의 강력한 애착심을 의미하는 개인적 감정'으로 규정하였다(이형하, 2005 재인용).

공동체 의식의 근간을 이루는 의식의 구성요소에 대해, Nisbet(1962)은 공동체 의식을 공통된 이해를 갖는 데서 생기는 친밀성의 우리의식(we-being), 지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가진다고 하는 역할의식(role-feeling), 상호간에 협력하고 의존한다는 의존의식(dependent-feeling)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주택공사(1999)에서는 일정한 영역을 함께 공유하는 지역성(locality), 사회적 상호작용을 함께 하면서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공동체성(communality), 독자적인 실체로 존속하기를 피하는 유기체적(organism)속성을 들고 있다. 또 다른 연구(김경준, 1999; 홍형욱·채혜원, 2002)에서는 공동체 의식을 충족감, 연대감, 소속감 및 상호영향의식, 정서적 친밀감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공동체 의식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룡(1995)은 근린활동과 공동체 의식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주민들이 보다 많은 이웃들과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서 빈번한 상호작용을 할 때 이웃간의 친밀성이 증가하며, 주민들 간의 접촉은 공동체 의식의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공동체 의식을 측정하는 도구를 연구한 김경준(1999)은 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 결혼, 자녀수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남자가,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 결혼한 사람,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공동체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관련변수로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주택을 소유한 사람,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공동체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희(2000)는 공동주택의 공유공간의 확대, 코하우징 계획 등에서 성공적인 공동체 의식의 고취와 행동참여를 관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물리적 장소나 시설이라는 것은 공동의 이용을 통해 주민간의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며, 상호교류가 결국 공동체성을 만든다고 하였다(홍형욱·채혜원, 2002 재인용). 천현숙(2001)은 거주기간의 장기화가 소속감 및 이웃과의

1) 손세관(2002), 역사속의 커뮤니티, 미래의 커뮤니티,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3

2) 이경희(2000), 공동주택개발에 있어서 서구의 협동주택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논문집 38(2)

3) 천현숙(2001), 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한 거주자 특성과 커뮤니티 특성간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9(1).

긍정적 관계형성에 필요하며 여러 시설과 프로그램들이 복합적으로 마련될 때 주민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 대해 애정과 관심이 생겨나 공동체가 활성화된다고 하였다.

현대도시에서 새로 건설되는 주택지나 집합주택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촌락에서와 같이 관습화된 소집단으로서 긴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주민들이 이웃사람들과의 교제나 지역의 그룹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긴밀한 인간관계와 공동목표를 형성해 가야 한다.⁴⁾ 사람들이 주민들과 보다 상호 작용할 기회가 많고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므로 지역 주민들 간의 협동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유공간의 확보와 공동체 프로그램개발이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⁵⁾

이상의 문헌연구와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주생활 공동체 의식이란 이념과 목적이라는 측면보다는 개인과 가족의 일상생활의 중심지가 되는 주거를 기반으로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거주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 활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상호 접촉의 기회를 높이고, 공유된 경험을 통해 공동의 의식을 형성해 가는 것으로 정의한다.

(2) 코하우징

고전적 의미의 코하우징은 1940년대에 스웨덴에서 여성 해방운동의 일환으로, 직업을 가진 기혼여성의 조리작업과 가사노동 경감을 위하여 유료로 서비스를 공급받는 위탁관리형식에서 출발하였다. 1970년대 이후 차츰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식사준비, 주거관리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자치관리형식의 현대적인 코하우징으로 개발되었다(Vesbtro, 2000).⁶⁾ 코하우징은 어린이 돌보기, 일손 돕기 등 전통적인 생활방식에 근거하여 이웃의 역할 회복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가정생활의 축소 및 이웃생활을 확대하는 새로운 조화 방식을 절충하고 있다. 즉, 개별가정의 독립된 가정생활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이웃간에는 친근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방식으로서 프라이버시와 커뮤니티라는 상보적인 두 개념의 조화를 지향한다.⁷⁾ 그러므로 코하우징의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의 핵심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생활공간을 단지 중심에 배치하고 개인공간은 최소한의 필요공간만을 확보하고 축소시켜 계획함으로써 주민 간에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고 자발적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 시킨다는 데 있다.

코하우징의 디자인은 부엌과 욕실이 딸린 몇 개의 작은 개인주택과 옥외공간에 배치된 적당한 규모로 된 한 두개의 공동생활시설로 구성된다. 공동생활시설은 부엌,

식당, 세탁실, 취미실 등 공동체 정신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사람들의 사회적 접촉을 증가시킨다.

코하우징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물론, 독신자, 노인, 한부모가족 등이 다른 주민들과 상부상조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고독감을 덜고, 가사노동을 단순화시키고 아동양육에 이점이 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공동 활동에서 오는 즐거움, 소속감, 안전성을 줌으로써 이웃간에 긴밀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해 주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노인들 사이에서 관심을 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네덜란드·덴마크·스웨덴의 경우에 노인들이 코하우징으로 이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웃과의 사회적 접촉과 활동을 원하고, 그러한 생활방식이 노인들에게 안전감을 주기 때문이라고 보고 된 바 있다(Singelensberg, 1993; Jensen, 1994; Choi, 2002).

코하우징에서의 주거생활은 가사노동, 공동식사, 공동탁아, 자원 나누어 쓰기 등 그 상당부분을 이웃과 함께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비가 줄어들어 생활비·자원절약효과도 가져온다. 또한 공동체 관리에 참여하는 것은 보이지 않은 비용투자이며 주민들이 공동 활동에 참여하면 그만큼 코하우징 단지의 운영비용을 경감시켜주는 효과도 있다(Parliament et al., 1988). 공동 활동 참여는 경제적 효과이외에도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 규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각자의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가져온다. 이와 같이 코하우징에서의 공동활동은 주민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그들이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동기부여와 능동성을 주는 요인이 되므로(Lee, 2004)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현정의 연구(Lee, 2004)의 연구에서도 주민간의 공동체 의식이 동년배들끼리만 거주한다든가, 공동관심사를 함께 나눈다든가, 고독감을 느끼지 않는다든가, 정서적인 도움, 우정관계 사이에서 만들어진다고 주장하였다.⁸⁾

이옥경(2001)은 40대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공동생활을 강조한 노인용 코하우징의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그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이웃교류와 공동체 생활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최정신(2004)연구에서는 한부모 가족의 생활주거 지원대안으로서 코하우징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코하우징 거주 의사를 밝혔으며, 공동육아와 공동식사 등의 공동활동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동생활공간에 있어서도 도서관, 공부방, 컴퓨터실, 놀이터 등을 가장 원하였고, 공동미용실, 공동세탁실, 공동식당, 공동거실 등이 제공되면 편리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최근 그의 연구(2007)에서 서울과 지방도시에 거주하는 50대 중년층을 대상으로 노인용 코하우징의 공동공간과 공동 활동에 대한 선호를 조사하

4) 조성기(2002), 도시주거학, 동명사, p. 22

5) 홍형욱·채혜원(2004), 초고층 수상복합 건물 거주자의 지역공동체 의식과 근린활동, 한국가정관리학회논문집, 22(3)

6) 최정신(2006), 스칸디나비아 노인용 코하우징의 계획과 적용, 집문당

7) 신용재(2001), Cohousing에서 추구하는 프라이버시와 커뮤니티 조화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2(1)

8) 최정신(2006), 스칸디나비아 노인용 코하우징의 계획과 적용, 집문당

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이 혼자되거나 주택관리에 부담을 느낄 때 노인용 코하우징으로 입주하기 희망하였다. 또한 응답자들이 코하우징의 안전하고 덜 외로운 생활을 긍정적으로 생각한 반면, 프라이버시 측면과 공동 활동에 있어서는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코하우징의 계획을 시도한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다. 남궁서영(2001)은 20~60대 주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공동생활시설에 필요한 공간에 대한 요구를 기초로 공동생활공간을 계획하였다. 홍서정(2005)은 한국 농촌에 적합한 주거대안으로서 코하우징을 제안하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 가사노동의 절감효과와 고가의 기계설비 등을 공동으로 소유, 관리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줄 것이라고 하였다. 한주희(2005)는 심층면접을 통해 코하우징에 대한 의식조사와 요구도를 파악하여 맞벌이 가족을 위한 한국형 코하우징을 계획하였으며, 한민정(2006)은 거주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공동체 삶을 지원하는 중·저밀도 저층 중심의 주거단지로서 새로운 도시 근교 주거단지에 대한 계획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코하우징이란 개인생활을 중시하면서, 필요에 따라 공동생활을 하는 주거형식으로 동일한 지리적, 물리적 공간 속에서 공동생활의 역할을 공동으로 분담함으로써 주민들 간의 결속력을 다지는 의도화된 공동체 마을로 정의한다.

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와 연구모형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연구모형<그림 1>은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주거환경 특성, 주생활 공동체 의식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주생활 공동체 의식은 일반적인 특성, 주거환경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코하우징 선호도(보급 및 입주의사)는 주생활 공동체 의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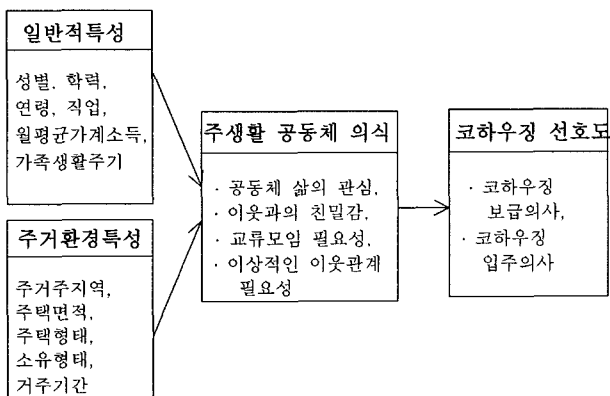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2.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과 자료수집

본 연구는 주거선택의 주체로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서울 및 수도권지역 20~60대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하여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6년 4월 17일~4월 23일에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적절치 못한 문장이나 표현, 애매한 내용 등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2007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코하우징을 모른다는 점을 감안하여 설문지에 코하우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을 첨부하였고, 이를 읽고 난 후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 조사대상은 성별(남/여), 지역(서울/인천, 부평, 안산, 수원 등) 등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였으며, 배부된 설문지는 총 250부로 수합된 설문지 중 내용기재가 부실한 설문지 23부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214부(85.6%)를 사용하였다.

(2) 조사도구 및 자료분석

본 조사의 질문항목은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성별, 연령, 학력, 직업, 월평균가계소득, 가족생활주기)과 주거환경 특성(거주지역, 주택유형, 주택소유형태, 주택규모, 거주기간)을 묻는 11문항, 주생활 공동체 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44문항, 코하우징 주거환경 요구를 묻는 10문항, 코하우징의 선호도(보급 및 입주의사)를 파악하는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생활 공동체 의식에 대한 문항은 선행연구(이옥경, 2001; 최재순·박인숙, 2005; 한민정, 2006)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였다. 주생활 공동체 의식은 총 44개 문항으로 교류모임 구성원, 현재 참여하는 교류모임 종류, 이웃주민들 사이에 필요한 교류모임, 공동체 생활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이웃 주민들과의 친밀한 정도, 이웃과 교류하게 된 동기, 이상적인 이웃관계, 이웃과의 교류 장애요소를 묻는 문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그렇지 않다’가 2점, ‘보통이다’가 3점, ‘그렇다’가 4점, ‘매우 그렇다’가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생활 공동체 의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생활 공동체 의식을 묻는 문항을 연구에 적합하도록 4개의 하위척도(총 44문항 중 36문항 이용)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4개의 하위영역은 공동체 삶의 관심 영역, 이웃과의 친밀감 영역, 교류모임 필요성 영역, 이상적인 이웃관계 필요성 영역이다. 각 하위영역의 구성을 살펴보면, 공동체 삶의 관심 영역은 ‘평소 더불어 사는 생활에 대한 관심’과 ‘미래 주택계획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생활의 필요성’에 관련된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웃과의 친밀감 영역으로는 ‘현재 거주하는 동네(아파트 단지)에서의 소속감 여부’와 ‘이웃과 친밀한 정도’, ‘이웃과 친하게 된 동기’에 관련된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류모임 필요성 영역은 ‘현재 참여하는 교류모임’과 ‘이웃주민

들 사이에 필요한 교류모임'에 관련된 17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이상적인 이웃관계 필요성 영역은 '더불어 사는 생활은 어떤 것인가'에 관련된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주생활 공동체 의식에 대한 측정도구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를 알아본 결과, Cronbach's α 값이 .888로 나타났다.

코하우징 주거환경과 선호도(보급 및 입주의사)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Cronbach's α 값은 각각 .847, .838로 나타났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주거환경 특성, 주생활 공동체 의식, 코하우징 주거환경 요구, 코하우징 선호도(보급 및 입주의사)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사용하였으며, 답변된 내용 중 교류모임 필요성은 응답결과의 빈도결과를 고려해 높은·보통·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보고, 집단별로 요구하는 교류모임의 종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배경변인에 따라 주생활 공동체 의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T-test,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검증하였다. 또한 주생활 공동체 의식을 높은·보통·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본 후, 집단별로 코하우징 선호도(보급 및 입주의사)에 유의한 차이를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III. 분석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이, 성별, 연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214

구분	N(%)
성별	남성 92 (43.0)
	여성 122 (57.0)
연령 (평균 43.48세)	39세이하 76 (35.5)
	40세-49세 87 (40.7)
	50세이상 51 (23.8)
학력	고졸이하 65 (30.8)
	대졸이상 146 (69.2)
직업	전문기술, 경영관리직 67 (31.6)
	사무직 40 (18.9)
	상공자영업, 판매서비스직 37 (17.5)
	자유업, 기능직, 노무직 34 (16.0)
	전업주부 34 (16.0)
월평균 가계소득 (평균 443.32만원)	100만원-300만원 64 (30.3)
	301만원-500만원 92 (43.6)
	501만원-1000만원 55 (26.1)
가족생활주기	가족형성기 55 (25.7)
	자녀교육기 72 (33.6)
	가족축소기 87 (40.7)

*빈도의 차이는 결측치에 의한 오차임.

령, 학력, 직업, 월평균가계소득, 가족생활주기 등을 알아보았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43%, 여자가 57%이며 연령은 40대가 40.7%로 평균연령은 43세였다. 학력은 대졸이상이 69.2%로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이 높으므로 나타났다. 직업은 전문기술 및 경영관리직이 31.6%, 사무직이 18.9%, 상공자영업 및 판매서비스직이 17.5%로 나타났다. 월평균가계소득은 평균443만원 정도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3,595,321원(2006년 4분기 통계청⁹⁾ 자료임을 감안할 때, 조사대상자의 월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평균소득보다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사무직, 상공자영업 및 판매서비스직 등 타 직종보다 전문기술 및 경영관리직이 많이 표집되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가족생활주기는 가족축소기가 40.7%, 자녀교육기가 33.6%, 가족형성기가 25.7% 순으로 표집 되었다.

2. 조사대상자의 주거환경 특성

조사대상자의 현재 주거환경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거주지역, 주택규모, 주택유형, 주택소유형태, 거주기간 등을 알아보았다<표 2>.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은 서울이 55.6%, 서울 근교(인천, 부평, 안산, 수원)지역이 44.4%로 고르게 표집 되었다. 주택유형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분류하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53.7%인데 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15%에 불과하였다. 이는 오늘날 주택공급의 형태가 아파트를 위주로 공급되며,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을 단편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택소유형태는 대부분 자가 소유(66.8%)로 나타났다. 주택규모(전용면적기준)는 30-40평미만(39.6%), 20-30평미만(34.9%) 순으로 많았으며, 현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표 2. 조사대상자의 주거환경 특성 N = 214

구분	N(%)
거주 지역	서울근교 94 (44.4)
	서울 119 (55.6)
주택 유형	고층아파트 115 (53.7)
	연립주택, 다세대 67 (31.3)
	단독주택 32 (15.0)
주택 소유 형태	임차 71 (33.2)
	자가 143 (66.8)
주택 규모 (평균 = 30.61평) 전용면적기준	7-20평 미만 22 (10.4)
	20-30평 미만 74 (34.9)
	30-40평 미만 84 (39.6)
	40평 이상 32 (15.1)
거주 기간 (평균 5년 3개월)	3년 미만 80 (38.5)
	3년 이상-5년 미만 39 (18.8)
	5년 이상-10년 미만 45 (21.6)
	10년 이상 44 (21.2)

*빈도의 차이는 결측치에 의한 오차임.

9) <http://www.nso.go.kr>

은 평균 5년 3개월로, 실제 조사대상자가 현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는 42.8%이었다. 그에 반해 3년 미만 거주하는 경우는 38.5%로 많은 분포를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세 계약이 2년을 기본으로 계약되는 현상을 보아 대다수의 조사대상자들이 2년을 주기로 주거를 이동하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3. 조사대상자들의 주생활 공동체 의식

1) 주생활 공동체 의식에 대한 일반적 경향

교류 모임의 구성원은 직장동료(28.9%)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동창(18.5%), 가족·친인척(17.5%), 동네·지역사회(15.6%) 순으로 나타났다<표 3>. 이를 통해 조사대상자들의 교류모임은 사회활동에 따라 잦은 접촉을 하는 직장동료와 활발한 교류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조사대상자의 교류 모임 구성원 N = 214

구분	N (%)
직장동료	61 (28.9)
동창	39 (18.5)
가족·친인척	37 (17.5)
동네·지역사회	33 (15.6)
종교단체	18 (8.5)
기타동호회	15 (7.1)
학부형	8 (3.8)

*빈도의 차이는 절측치에 의한 오차임.

조사대상자들이 현재 참여하는 교류모임의 종류<표 4>는 건강관련 강좌, 운동동호회 등 건강지원과 관련된 모임(2.50점)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고, 문화여가 및 취미활동(2.43점), 주민교류 및 친목도모(2.37점)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이 43세인 점을 감안할 때

표 4. 현재 참여하는 교류모임 종류와 필요한 교류모임

구분		M (SD)
현재 참여하는 교류모임 종류	건강지원 및 스포츠(건강관련강좌, 운동동호회)	2.50 (1.31)
	문화여가 및 취미(문화강좌, 취미활동 등)	2.43 (1.16)
	주민 교류 및 친목(노인교실, 차 마시는 모임)	2.37 (1.28)
	교양 및 교육(교양강좌, 어린이육아, 육아모임)	2.25 (1.14)
	생활지원 및 복지(봉사활동, 부녀회, 반사회 등)	2.19 (1.17)
이웃 주민들 사이에 필요한 교류모임	재활용품 교환운동(현웃 모이기 등)	3.68 (.87)
	어린이·청소년프로그램(공부방, 미술교실 등)	3.61 (.86)
	노인 문화프로그램(건강댄스, 의료강좌 등)	3.55 (.92)
	단지내 화단가꾸기(자기 나무심기, 텃밭 등)	3.49 (.92)
	사회봉사활동(지역내 무의탁 노인·소녀 돕기)	3.47 (.91)
	주민취미 프로그램(도서대출실, 취미실 등)	3.36 (.96)
	주민운동프로그램(에어로빅, 탁구,헬스 등)	3.32 (.90)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동체 활동	3.17 (.96)
	주민 교양강좌(서예, 단전, 바둑 등)	3.31 (.94)
	교육포럼이, 단지 내 전문강사 초빙강좌 등	3.02 (.93)
	각종 동호회(등산, 테니스, 영화관람 등)	3.01 (.90)
	주민잔치개최 (축제, 노래자랑, 운동회 등)	2.88 (.94)

건강에 대해 신경을 쓰는 나이임을 알 수 있으며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웃 주민들 사이에 필요한 교류모임의 우선 순위를 <표 4>에서 살펴보면, 재활용품 교환운동(3.68점),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3.61점), 노인 문화 프로그램(3.55점)에 대한 교류활동을 가장 높게 필요로 하였다. 이는 사회봉사·자원봉사에 대한 모임과 건강관련 강좌듣기 모임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선행연구(이옥경, 2001; 최재순·광인숙, 2005)와는 다른 결과이다.

반면에, 각종 동호회(3.01점), 주민 잔치 개최(2.88점)에 대한 교류활동에서는 낮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현재 교류모임 구성원이 대부분 직장동료 임을 <표 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동네(아파트 단지)내에서 보다 외부에서 직장동료 모임 및 동호회 모임 등을 통해 개인적인 교류모임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기 위해 주민들이 교류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 제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옥경, 2001; 천현숙, 2001; 최재순·광인숙, 2005)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교류모임의 필요성이 높은 집단이 요구하는 교류모임의 종류를 알아보기 위해, 교류모임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결과의 빈도분석을 통해 사례분포를 고려하여 높은·보통·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표 5>.

표 5. 교류의 필요성에 따른 집단 구분 N = 214

구분	점수범위	사례수	%
높은 집단	57-85	62	29.0
보통 집단	48-56	91	42.5
낮은 집단	17-47	61	28.5

교류모임 필요성은 ‘현재 참여하는 교류 모임’, ‘이웃 주민들 사이에 필요한 교류모임’ 등을 묻는 문항<표 4 참조> 등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총점은 17점~8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류모임의 필요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 계수는 .831이다. 집단별로 요구하는 교류모임 종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모든 교류모임 종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교류모임 필요성이 높은 집단은 ‘재활용품 교환운동(93.5%)’, ‘사회봉사활동(87.1%)’, ‘어린이·청소년프로그램(80.6%)’, ‘노인문화프로그램(82.3%)’, ‘단지 내 화단 가꾸기(80.6%)’ 등의 교류모임에서 80%이상 필요하다고 인지하였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동체 활동’은 59.7%로 과거의 장소 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와 달리 현재는 네트워크를 통한 이웃과의 교류도 중요함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소극적인 집단은 프라이버시 등의 이유로 이웃과의 교류모임에 많은 한계를

표 6. 교류모임의 필요성에 따른 교류 모임 종류

구분	높은집단	보통집단	낮은집단	계	χ^2	구분	높은집단	보통집단	낮은집단	계	χ^2	
주민 잔치 개최	필요	37(59.7)	17(18.7)	2(3.3)	56(26.2)	재활 용품 교환 운동	필요	58(93.5)	57(62.6)	18(29.5)	133(62.1)	$\chi^2 =$ 60.890 *** df = 4
	보통	19(30.6)	39(42.9)	27(44.3)	85(39.7)		보통	4(6.5)	30(33.0)	29(47.5)	63(29.4)	
	불필요	6(9.7)	35(38.5)	32(52.5)	73(34.1)		불필요	0(0.0)	4(4.4)	14(23.0)	18(8.4)	
	계	62(100.0)	91(100.0)	61(100.0)	214(100.0)		계	62(100.0)	91(100.0)	61(100.0)	214(100.0)	
각종 동호회	필요	38(61.3)	17(18.7)	4(6.6)	59(27.6)	주민 교양 강좌	필요	45(72.6)	33(36.3)	8(13.1)	86(40.2)	$\chi^2 =$ 48.852 *** df = 4
	보통	19(30.6)	53(58.2)	27(44.3)	99(46.3)		보통	15(24.2)	41(45.1)	34(55.7)	90(42.1)	
	불필요	5(8.1)	21(23.1)	30(49.2)	56(26.2)		불필요	2(3.2)	17(18.7)	19(31.1)	38(17.8)	
	계	62(100.0)	91(100.0)	61(100.0)	214(100.0)		계	62(100.0)	91(100.0)	61(100.0)	214(100.0)	
사회 봉사 활동	필요	54(87.1)	48(52.7)	12(19.7)	114(53.3)	어린이 청소년 프로 그램	필요	50(80.6)	56(61.5)	17(27.9)	123(57.5)	$\chi^2 =$ 37.995 *** df = 4
	보통	8(12.9)	39(42.9)	28(45.9)	75(35.0)		보통	11(17.7)	28(30.8)	32(52.7)	71(33.2)	
	불필요	0(0.0)	4(4.4)	21(34.4)	25(11.7)		불필요	1(1.6)	7(7.7)	12(19.7)	20(9.3)	
	계	62(100.0)	91(100.0)	61(100.0)	214(100.0)		계	62(100.0)	91(100.0)	61(100.0)	214(100.0)	
주민 운동 프로 그램	필요	49(79.0)	43(47.3)	6(9.8)	98(45.8)	노인 문화 프로 그램	필요	51(82.3)	52(57.1)	16(26.2)	119(55.6)	$\chi^2 =$ 49.404 *** df = 4
	보통	10(16.1)	43(47.3)	30(42.9)	83(38.8)		보통	11(17.7)	32(35.2)	27(44.3)	70(32.7)	
	불필요	3(4.8)	5(5.5)	25(41.0)	33(15.4)		불필요	0(0.0)	7(7.7)	18(29.5)	25(11.7)	
	계	62(100.0)	91(100.0)	61(100.0)	214(100.0)		계	62(100.0)	91(100.0)	61(100.0)	214(100.0)	
주민 취미 프로 그램	필요	49(79.0)	44(48.8)	11(18.0)	104(48.6)	인터넷 이용 공동체	필요	37(59.7)	30(33.0)	11(18.0)	78(36.4)	$\chi^2 =$ 25.942 *** df = 4
	보통	10(16.1)	35(38.5)	29(47.5)	74(34.6)		보통	19(30.6)	42(46.2)	30(49.2)	91(42.5)	
	불필요	3(4.8)	12(13.2)	21(34.4)	36(16.8)		불필요	6(9.7)	19(20.9)	20(32.8)	45(21.0)	
	계	62(100.0)	91(100.0)	61(100.0)	214(100.0)		계	62(100.0)	91(100.0)	61(100.0)	214(100.0)	
단지내 화단 가꾸기	필요	50(80.6)	53(58.2)	11(18.0)	114(53.3)	교육 품앗이 등	필요	35(56.5)	18(19.8)	7(11.5)	60(28.0)	$\chi^2 =$ 37.962 *** df = 4
	보통	12(19.4)	32(35.2)	26(42.6)	70(32.7)		보통	20(32.3)	46(50.5)	31(50.8)	97(45.3)	
	불필요	0(0.0)	6(6.6)	24(39.3)	30(14.0)		불필요	7(11.3)	27(29.7)	23(37.7)	57(26.6)	
	계	62(100.0)	91(100.0)	61(100.0)	214(100.0)		계	62(100.0)	91(100.0)	61(100.0)	214(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이웃과 더불어 사는 생활에 대한 관심<표 7>은 3.23점으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생활에서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동네(아파트 단지)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견해도 2.98점으로 낮게 조사되어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미래 주택계획에 있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생활의 필요성’은 3.68점으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거주자들이 일반적으로 공동체적인 삶과 이웃과의 교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자신이 거주하는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개념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모순적인 의식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한민정, 2006).

표 7. 이웃과 더불어 사는 생활의 관심, 필요성

구분	M (SD)
평소 이웃과 더불어 사는 생활에 대한 관심	3.23 (.83)
현재 살고 있는 동네(아파트단지)에서의 소속감	2.98 (.81)
미래주택계획에 있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생활의 필요성	3.68 (.66)

이웃과 어느 정도 친하는가에 대한 질문<표 8>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은 ‘가벼운 인사나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54.7%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이는 선행연구(한민정, 2006; 대한주택공사, 2001)에서도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 다음으로 ‘인사 정도는 하지만 그 이상은 부담스럽다’는 응답도 29%로 조사되었다. 반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의하는 등 가족같이 지내는 경우’는 7.9%로 조사대상자들의 생활패턴이 공동체 생활보다 개인생활을 위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표 8. 이웃과 친밀한 정도

N = 214

구분	N (%)
인사정도는 나누지만 그 이상 부담스러움	62 (29.0)
가벼운 인사나 간단한 대화를 나눔	117 (54.7)
쇼핑,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함	18 (8.4)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움	15 (7.0)
가족같이 지냄(여러가지 문제를 상의)	2 (0.9)

이웃과 교류를 어떻게 형성하는가에 대한 질문<표 9>에서 조사대상자들은 ‘로비, 계단 등에서 마주쳐서 친해진 경우’가 3.0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를 통해서 만나는 경우’가 2.87점, ‘나이, 직업이 비슷해서 친해지는 경우’가 2.66점 순으로 응답하여 로비, 계단실의 디자인이 이웃과의 교류형성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커뮤니티 시설에서 만나서 친해지는 경우’는 1.98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표 9. 이웃과의 교류 형성 동기와 교류 장애 요소

구 분		M (SD)
이웃과의 교류형성 동기	로비, 계단에서 친해짐	3.08 (1.10)
	자녀를 통해 만남	2.87 (1.26)
	나이, 직업이 비슷해서 친해짐	2.66 (1.20)
	주민조직활동을 통해 만남	2.36 (1.14)
	단지문제해결과정을 통해 만남	2.27 (1.05)
	이사오기 전부터 교류	2.01 (1.08)
이웃과의 교류장애 요소	커뮤니티 시설에서 만남	1.98 (1.01)
	시간 부족	3.78 (.94)
	공동체적 삶에 대한 인식부족	3.61 (.89)
	공동 편의시설의 부족	3.35 (1.00)
	교류프로그램이 부족	3.33 (1.02)
	이웃에 대해 폐쇄적인 주택설계	3.25 (1.00)
이웃과의 교류를 위한 장소 부재	3.24 (1.05)	
마음이 맞지 않아서	3.04 (1.00)	

이웃과의 교류에 장애가 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표 9>에 조사대상자들은 ‘시간 부족’(3.78점), ‘공동체적 삶에 대한 인식 부족’(3.61점) ‘공동의 편의시설의 부족’(3.35점)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현대인들이 모두 바쁘고 특별하게 이웃을 형성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지 않으며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이 원인인 것으로 선행 연구 (한민정, 2006)와 일치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필요한 이상적인 이웃의 관계<표 10>를 ‘육아 및 자녀교육에 도움이 된다’(3.71점), ‘범죄예방과 안전대책을 이웃과 협조한다’(3.67점) 순으로 요구하였다. 반면에 ‘이웃간에 교류 할 수 있는 주민 공유공간 필요’(3.35점)와 ‘공동체 활동을 통해 가사노동을 감소한다’(2.89점)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이웃과의 공동체 의식이 잘 갖추어진 주민 공유공간 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사료된다.

표 10. 이상적인 이웃관계

구 분	M (SD)
육아 및 자녀 교육에 도움	3.71 (.74)
범죄예방 및 안전대책을 위해 이웃과 협조	3.67 (.74)
문화, 여가, 취미, 정보를 공유	3.61 (.75)
고립감이 해소 및 소속감, 동질감이 부여	3.60 (.78)
주민 참여를 통한 합리적인 공동관리 가능	3.41 (.79)
이웃간 교류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	3.38 (.80)
이웃간 교류 할 수 있는 주민공유공간 필요	3.35 (.87)
공동체 활동을 통해 가사노동을 감소	2.89 (.83)

2) 배경변인에 따른 주생활 공동체 의식

주생활 공동체 의식의 하위영역(공동체 삶의 관심 영역, 이웃과의 친밀감 영역, 교류모임 필요성 영역, 이상적인 이웃관계 필요성 영역)이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주거환경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T-test, Anova를 실시하고, 사후검증방법으로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11>에 제시한 바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동체 삶의 관심 영역은 조사대상자의 연령($p < .01$), 학력($p < .01$), 가족생활주기($p <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웃과의 친밀감 영역은 연령($p < .01$), 학력($p < .01$), 가족생활주기($p < .001$), 주택유형($p < .001$), 주택규모($p < .05$), 거주기간($p < .05$)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류모임필요성 영역은 연령, 직업,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보이는 반면, 이상적인 이웃관계필요성 영역은 주택유형($p < .05$)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11. 배경변인에 따른 주생활 공동체 의식

구 분	주생활 공동체 의식			
	공동체 삶의 관심	이웃과의 친밀감	교류모임 필요성	이상적인 이웃관계 필요성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	**	*
	학력	**	**	
	직업			*
	월평균소득			
	가족생활주기	*	***	*
주거 환경 특성	거주지역			
	주택유형		***	*
	주택소유형태			
	주택규모		*	
거주기간		*		

주: * $p < .05$ ** $p < .01$ *** $p < .001$

구체적으로, 조사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각 하위영역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Anova 분석을 하고, 사후검증으로 Duncan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는 <표 12>과 같다. 연령에 따라서는 공동체 삶의 관심 영역, 이웃과의 친밀감 영역, 교류모임 필요성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삶의 관심영역($F = 6.69 p < .01$)은 50세 이상 집단이 5점 만점에 3.72점, 40세-49세 집단이 3.41점, 39세 이하 집단이 3.32점 순으로 낮아졌다. Duncan 검증을 실시한 결과 공동체 삶의 관심 영역은 50세 이상 집단과 49세 이하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이옥경, 2001; 김경준, 1999)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우로 연령이 높은 집단이 공동체 생활을 더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웃과의 친밀감 영역($F = 5.53 p < .01$)은 세 집단 모두 3점 이하로 이웃과의 친밀감이 높지는 않았으나, 사후검증결과 39세이하 집단과 40세이상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교류모임 필요성 영역($F = 3.62 p < .05$)은 50세이상 집단(3.12점), 40-49세 집단(3.10점), 39세이하 집단(2.91점) 순으로 낮아졌다. 사후검증결과 39세이하 집단과 40세이상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은 집단이 주민잔치, 사회봉사활동

동, 반상회 등 교류모임을 통해 이웃과 빈번한 교류를 하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동네(아파트 단지)에서의 공동체 생활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12. 연령에 따른 주생활 공동체 의식

연령	영역	공동체 삶의 관심 (D)	이웃과의 친밀감 (D)	교류모임 필요성 (D)
39세 이하		3.32 (b)	2.28 (b)	2.91 (b)
40세-49세		3.41 (b)	2.52 (a)	3.10 (a)
50세 이상		3.72 (a)	2.61 (a)	3.12 (a)
F값		6.69**	5.53**	3.62*

주: (1) * $p < .05$ ** $p < .01$ (2)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조사대상자의 학력에 따른 주생활 공동체 의식의 하위 영역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공동체 삶의 관심 영역, 이웃과의 친밀감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표 13>에 제시하였다. 학력에 따른 공동체 삶의 관심영역($t = 2.85$ $p < .01$)에서의 차이 검증을 살펴보면, 고졸이하 집단(3.63점)이 대졸이상 집단(3.37점)보다 공동체 삶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이웃과의 친밀감 영역($t = 2.73$ $p < .01$)에 있어서도 고졸이하 집단(2.63점)이 대졸이상 집단(2.39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김경준(1999)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이 공동체 의식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표 13. 학력에 따른 주생활 공동체 의식

학력	영역	공동체 삶의 관심	이웃과의 친밀감
고졸 이하		3.63	2.63
대졸 이상		3.37	2.39
t값		2.85**	2.73**

주: (1) ** $p < .01$

직업에 따른 주생활 공동체 의식의 하위영역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Anova와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교류모임 필요성 영역($F = 3.36$ $p < .05$)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14>. 자유업, 기능직, 노무직에 종사하는 집단이 5점 만점에 3.2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무직에 종사하는 집단은 2.79점으로 가장 낮았다.

Duncan 검증을 실시한 결과 교류모임 필요성 영역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집단과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집단 간

표 14. 직업에 따른 공동체 의식

직업	영역	교류모임의 필요성(D)
전문기술, 경영관리직		3.05 (a)
사무직		2.79 (b)
상공차영, 판매서비스직		3.12 (a)
자유업, 기능직, 노무직		3.20 (a)
전업주부		3.04 (a)
F값		3.36*

주: (1) * $p < .05$ (2)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주생활 공동체 의식의 하위영역은 <표 1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공동체 삶의 관심 영역, 이웃과의 친밀감 영역, 교류모임 필요성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공동체 삶의 관심 영역($F = 3.56$ $p < .05$)은 가족축소기에 있는 집단(3.59점), 자녀교육기에 있는 집단(3.39점), 가족형성기에 있는 집단(3.33점) 순으로 낮아졌다. 사후검증결과 가족축소기에 있는 집단과 가족형성기에 있는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웃과의 친밀감 영역($F = 9.17$ $p < .001$)은 가족축소기에 있는 집단이 2.5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형성기에 있는 집단이 2.17점으로 낮았다. 사후검증결과 가족형성기에 있는 집단과 자녀교육기·가족축소기에 있는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교류모임 필요성 영역($F = 3.32$ $p < .05$)은 가족축소기에 있는 집단(3.13점), 자녀교육기에 있는 집단(3.04점), 가족형성기에 있는 집단(2.90점) 순으로 낮아졌다. Duncan 검증을 실시한 결과 가족축소기에 있는 집단과 가족형성기에 있는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가족축소기에 있는 집단이 세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이들 집단이 주민잔치, 동호회, 주민조직 활동 등을 통해 공동체 생활을 더 지향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가족축소기에 있는 집단이 자녀들이 출가해서 없는 빈 등우리시기로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웃과의 교류를 많이 하는 시기로 판단된다.

주택유형에 따른 주생활 공동체 의식의 하위영역에 차

표 15.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주생활 공동체 의식

가족생활주기	영역	공동체 삶의 관심 (D)	이웃과의 친밀감 (D)	교류모임 필요성 (D)
가족형성기		3.33 (b)	2.17 (b)	2.90 (b)
자녀교육기		3.39 (ab)	2.55 (a)	3.04 (ab)
가족축소기		3.59 (a)	2.57 (a)	3.13 (a)
F값		3.56*	9.17***	3.32*

주: (1) * $p < .05$ *** $p < .001$ (2)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Anova와 사후검증 방법으로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16>에 제시한 바와 같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하위영역은 이웃과의 친밀감 영역, 이상적인 이웃관계 필요성 영역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16. 주택유형에 따른 주생활 공동체 의식

주택유형	영역	이웃과의 친밀감 (D)	이상적인 이웃관계 필요성 (D)
단독주택		2.72 (a)	3.64 (a)
연립·다세대		2.59 (a)	3.56 (ab)
고층아파트		2.32 (b)	3.38 (b)
F값		7.98***	4.36*

주: (1) * $p < .05$ *** $p < .001$ (2)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구체적으로 이웃과의 친밀감 영역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2.72점)가 연립·다세대 주택(2.59점) 및 고층아파트(2.32점)보다 더 이웃과의 친밀감 정도가 높았으며, 이상적인 이웃관계 필요성 영역에서도 단독주택(3.64점), 연립·다세대 주택(3.56점), 고층아파트(3.38점) 순으로 이웃관계의 필요성을 높게 나타냈다. Duncan 사후검증에 있어서도 이웃과의 친밀감 영역은 단독주택 및 연립·다세대에 사는 집단과 고층아파트에 사는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상적인 이웃관계 필요성 영역에서는 단독주택에 사는 집단과 고층아파트에 사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돕고 사는 전통적인 이웃관계가 다른 주거 유형보다 단독주택에 많이 잔재되어 있기 때문(김경준, 1999)으로 사료된다.

주택규모에 따른 주생활 공동체 의식의 하위영역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Anova와 Duncan 검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하위영역 중 이웃과의 친밀감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웃과의 친밀감 영역($F=3.57$ $p<.05$)은 3점 이하의 낮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주택규모가 커질수록 이웃과의 친밀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으며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는 집단은 40평이상 집단으로 평균 2.60점이었다. 사후검증결과 7-20평미만에 사는 집단과 20평 이상에 사는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거주기간에 따른 주생활 공동체 의식의 하위영역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거주기간에 따라 하위영역은 이웃과의 친밀감 영역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17>.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이웃과의 친밀감 영역($F=3.33$ $p<.05$)은 10년 이상의 거주한 집단이 2.65점으로 다른 집단보다 이웃과의 친밀감이 높았다. Duncan 검증을 실시한 결과 10년이상 거주하는 집단과 5년 미만에 거주하는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한 동네(아파트단지)에 오래 살수록 동네(아파트단지)에 대한 소속감이 높아져 자발적으로 이웃과의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17. 주택규모, 거주기간에 따른 주생활 공동체 의식

영역		이웃과의 친밀감(D)
주택규모	7-20평미만	2.09 (b)
	20-30평미만	2.48 (a)
	30-40평미만	2.49 (a)
	40평이상	2.60 (a)
	F값	3.57*
	거주기간	3년미만
3이상-5년미만		2.34 (b)
5년이상-10년미만		2.57 (ab)
10년이상		2.65 (a)
F값		3.33*

주: (1) * $p<.05$ (2)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홍형욱·채혜원(2005)은 공유공간이나 주민조직 활동을 중심으로 이웃관계를 유지하게 될 경우 상호영향의식과 소속감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지만, 이미 친분관계로 이웃이 된 경우 정서적 친밀감 같은 공동체 의식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4. 주생활 공동체 의식에 따른 코하우징 선호도

코하우징 주거환경 요구는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따라 응답자들이 어느 정도 코하우징을 선호(코하우징 보급 및 입주 의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McCamment & Durrett, 1994; 남궁서영, 2001; 한주희, 2005)를 바탕으로 코하우징 생활의 특징을 종합하여 구성하였으며 코하우징 주거환경 요구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코하우징에 대한 주거환경은 <표 18>과 같다. 응답자들은 ‘외출시 어린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이웃, 단지내 탁아방이 있다(3.92점)’, ‘자주 사용하지 않은 물건(잔디깎기, 연장, 캠핑도구, 계절물건 등)은 공동구입으로 구입한다(3.80점)’에서 높은 요구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vestbro, 1997; 남궁서영, 2001; 한주희, 2004, 홍서정, 2005)로 코하우징 주거환경이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자극이 되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고 쉽게 놀이친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응답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주부들의 가사노동 절감과 친밀한 이웃관계를 위해 정기적인 공동식사를 한다’는 3.17점으로 낮은 요구를 보였는데, 이는 유럽에서 공동식사가 주민들에게 가사 노동의 절감 효과를 주어 가장 선호되는 공동생활(McCarment & Durrett, 1994; 최정신, 2004)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식사를 사적인 활동(최정신, 2007)으로 여기는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이웃과의 공동식사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18. 코하우징 주거환경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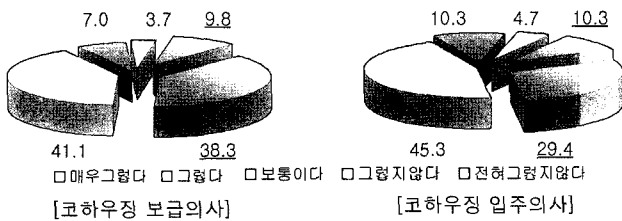
구분	M (SD)
외출시 어린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이웃·탁아방 있음	3.92 (.75)
자주 사용하지않은 물건(잔디깎기, 캠핑도구)은 공동구입	3.80 (.81)
주거단지내 공동영역 관리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3.67 (.75)
주민이 자주 만날 수 있는 단지설계	3.65 (.76)
주거단지내 주민들끼리 육아, 교육에 서로 도움	3.65 (.76)
연중행사, 축제, 모임등 주민모임에 적극 참여	3.65 (.80)
주거단지의 초기개발부터 입주자로서 의사결정에 참여	3.57 (.80)
주거단지내 공동활동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3.57 (.77)
비싼 대형의 세탁설비, 부엌설비를 공동으로 구입	3.31 (.99)
가사노동절감, 친밀한 이웃관계를 위해 정기적인 공동식사	3.17 (.90)

조사대상자의 코하우징 선호도(보급 및 입주의사)에 대한 응답을 얻기 위해 ‘더불어 사는 코하우징이 우리나라에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사는 코하우징 단지가 생긴다면 입주해 살고 싶다’라는 두 항목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코하우징 선호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조사결과, 코하우징 보급 및 입주의사는 각각 3.43점, 3.30점으로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며, ‘그렇다’, ‘매우 그렇다’는 견해를 합친 비율에서는 응답자의 48.1%가 ‘우리 나라에 코하우징이 보급되어야 한다’고 의사를 나타내었다. 또한, ‘코하우징이 생기면 입주 하겠느냐’에 대한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39.7%가 입주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선행연구(홍서정, 2005; 한주희, 2005; 한민정, 2006)에서 응답자의 60~80%가 코하우징으로 이주하겠다는 비율을 나타낸 것보다 낮은 결과이지만 응답자들이 코하우징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점으로 보아 우리나라에 코하우징 도입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9. 조사대상자의 코하우징 보급, 입주에 대한 의견



코하우징 선호도(보급 및 입주의사)는 주생활 공동체 의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Anova와 사후검증 방법으로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주생활 공동체 의식은 응답결과의 분포를 고려하여 높은·보통·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표 20>. 공동체 생활, 이웃과의 친밀감, 교류모임 필요성, 이상적인 이웃관계 등을 묻는 36문항으로 이루어진 주생활 공동체 의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총점은 36점~180점이다.

표 20. 주생활 공동체 의식에 따른 집단 구분 N=214

구분	점수범위	사례수	%
높은 집단	116-180	65	32.3
보통 집단	101-115	73	36.3
낮은 집단	36-100	63	31.3

<표 2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생활 공동체 의식에 따른 코하우징 선호도는 코하우징 입주의사에서만 유의미한 차이(F = 7.13, 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의식이 높은 집단이 3.66점으로 다른 집단보다 코하우징에 입주할 의사가 높았으며 Duncan 검증에서도 공동체 의식이 높은 집단이 다른 집단간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그 어느 변수보다 주생활 공동체 의식이 코하우징 입주 의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자주 접촉하고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동 활동 프로그램(차 모임, 취미·공예활동, 교육 모임, 친환경 생활 등)을 계획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21. 주생활 공동체 의식에 따른 코하우징 선호도

영역	코하우징 보급의사 (D)	코하우징 입주의사 (D)
주생활공동체의회식		
높은 집단	3.62 (a)	3.66 (a)
보통 집단	3.45 (ab)	3.26 (b)
낮은 집단	3.27 (b)	3.06 (b)
F값	2.43	7.13***

주: (1) ***p < .001 (2)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IV. 결 론

본 연구는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적인 특성, 주거환경특성, 주생활 공동체 의식 등을 파악하고, 주생활 공동체 의식이 코하우징 선호도(보급 및 입주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조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대부분 응답자들이 직장동료와 교류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건강관련 모임과 여가 및 취미활동 모임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이웃과의 교류에 재 활용품 교환운동,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에 관한 교류활동을 가장 높게 필요로 하였으며, 이상적인 교류정도는 가벼운 인사나 대화를 나누는 정도로 육아 및 자녀교육, 범죄 예방 및 안전 대책을 위해 협조하는 정도로 이웃과 교류하기를 원하였다.

2) 실제 응답자들이 공동체적인 삶과 이웃과의 교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거주하는 주거 환경에서는 공동체 삶의 무관심, 물리적 공간 부재 등으로 공동체 생활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코하우징 단지의 물리적 공간설계가 주민간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촉진시키고 서로 쉽게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사회성을 도모한다는 점(McCament & Durrett, 1994)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주생활 공동체 의식은 4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령, 학력, 가족생활주기는 하위영역 중 공동체 삶의 관심 영역, 이웃과의 친밀감 영역, 교류모임 필요성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주택유형은 이웃과의 친밀감 영역과 이상적인 이웃관계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공동체적인 삶 형성에 있어 물리적 조건도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거주기간은 이웃과의 친밀감 영역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동네(아파트 단지)에 대한 공동체 의식은 일정한 지역 안에서 주민들이 공동생활과 경험의 공유로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마을축제, 단지 미화 및 공동정원 가꾸기 등의 교류프로그램을 연계시켜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낼 때 더욱 공동체가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된다.

5) 응답자들은 코하우징 보급의사와 입주의사에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코하우징 선호도 중 코하우징 입주 의사만 주생활 공동체 의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공동체 의식이 높은 집단이 코하우징에 입주할 의사가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아직까지 코하우징에 대한 인식이 노후에 귀촌해서 이웃과 교류하고, 텃밭을 가꾸며 살고 싶은 전원주택에 가까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코하우징의 보급을 위해서는 먼저 코하우징이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보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홍보와 인식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종합계획(2003-2012)을 살펴보면, 국민 개개인의 욕구에 대응하는 생활관련 기능과 주거생활서비스의 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한주희, 2005). 이러한 점에서 코하우징이 공동육아, 공동식사, 공동소유, 가사노동 절감, 생활비·자원절약 등의 이점이 있고, 한부모 가족, 저소득층 가족, 노인가족 등에게 공동체 생활을 통해 안전성, 소속감을 줌으로써 이웃간에 긴밀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해 준다는 점에서 코하우징 단지 보급이 필요하다. 또한 코하우징 보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오늘날 주거환경에서는 자연발생적인 공동생활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의 이해관계(공동육아, 친환경적인 생활, 유기농법 등)를 중심으로 물리적 공간 속에서 의무적 참여와 선택적 참여를 적절히 조화하여 공동체 생활을 유형화해야 할 것이다. 결국, 공동체라는 것은 개개인의 모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생활모임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이제는 주택이 더 이상 소유개념이 아닌 거주개념으로 인식이 전환되어 가족과 이웃의 생활을 담는 진정한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경준(1999), 지역사회주민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상희(2001), 거주자 참가형 주택개발을 위한 주의식 조사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2(2).
- 남궁서영(2001), 코하우징의 공동생활시설계획,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대한주택공사(1999), 커뮤니티개념을 도입한 도시정비활성화 방안 연구.
- 대한주택공사(2001), 아파트 공동체 실현을 위한 방안 연구.
- 신용재(2001), Cohousing에서 추구하는 프라이버시와 커뮤니티 조화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2(1).
- 손세관(2002), 역사속의 커뮤니티, 미래의 커뮤니티,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13권.
- 이옥경(2001), 한국의 노인용 코하우징 개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2000), 공동주택 개발에 있어서 서구의 협동주택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논문집 38(2).
- 이형하(2005), 대도시지역 노인과 농촌지역 노인의 공동체 의식 관련요인 비교연구, 노인복지연구 28호.
- 우 룡(1995), 개인의 의지와 지역공동체 의식간의 관계 분석, 지역사회개발학회논문집 제5권.
- 조성기(2002), 도시주거학, 동명사, p. 22.
- 최재순 · 박인숙(2005),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상복합 주거의 공유공간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16(6).
- 최정신(2004), 한부모가족의 생활지원 주거대안, 한국가정관리학회논문집 22(1)
- 최정신(2006), 스칸디나비아 노인용 코하우징의 계획과 적용, 집문당.
- 최정신(2007), 한국인 50대의 노인용 코하우징 공유공간과 공동활동에 대한 선호,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8(1).
- 천현숙(2001), 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한 거주자 특성과 커뮤니티 특성간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9(1).
- 홍현욱 · 채혜원(2004), 초고층 건물거주자의 지역공동체 의식과 근린활동,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2(3).
- 홍서정(2005), 한국 농촌형 코하우징의 계획,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주희(2005), 맞벌이 가족을 위한 한국형 코하우징 계획안,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민정(2006), 코하우징 개념을 적용한 도시근교주거단지의 계획방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 통계청 <http://www.nso.go.kr>
- Choi, J.S & Paulsson (2003), A Study of Life and Physical Environment of Senior Cohousing in Scandinavian Countries, with Significance for Future Quality of Life in European Countries and East Asian Counties, The Stockholm Symposium on Nordic Studies, Association of Nordic Studies, Sweden, Japan and Korea, Stockholm Sweden.
- Choi, J.S (2004), Perceptions of Senior Cohousing by Korean 50s Living in Seoul Area, Presentation Paper at ENHR International Conference, Cambridge UK.
- Jense, S.P (1994), Summary and Conclusions of the Conference on Cohousing for Senior Citizens in Europe, BiC, Copenhagen, Denmark.
- Lee, H.J. (2004), Provision of Affordable Housing for Urban Seniors in New Local Era, J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6(2).
- McCament, K & Durrett, C (1994), Chousing, A Contemporary Approach to Housing Ourselves, Ten Speed Press, Baltimore.
- Singelensberg, J. (1993), Experience from Cohousing Schemes in The Netherlands, Presentation Paper for the Conference of Co-housing for Senior Citizen in Eroupe, BiC, Copenhagen.

(接受: 2007. 3. 22)